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 스카이드일리 조사받는다

광주시·재단·유가족 경찰 고소
故 조사전·최미애씨 사건 날조
진상조사위 “계엄군 총에 희생”
2차 가해 행위 엄정 수사해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편향 보도를 일삼아온 극보수 언론 스카이드일리 대표 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980년 5·18 당시 희생된 고 조사전·최미애씨의 유가족과 재단, 광주시는 지난 1일 스카이드일리 대표 A씨와 5·18 왜곡 기사를 작성한 B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스카이드일리가 지만원씨의 ‘5·18 북한 개입설’ 주장과 신원불명의 계엄군·탈북자 등의 증언을 근거로 사실 왜곡 보도를 이어왔고, 왜곡 특별판을 지난 2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단 등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카이드일리는 2023년 7월 6일자 ‘5·18 진실 찾기’ 기획시리즈의 ‘꼬마상주 아버지도 옥상 괴한 총격에 희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꼬마상주’의 아버지 고 조사전이 1980년 5월 21일 오후 태극기를 들고 장갑차를 타고 가다 무장괴한(북한 특수부대)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톨릭센터 옥상에서 발사된 총은 북한 특수부대의 칼빈 소총이었다. 특히 의료진 검안 재분석 결과 머리→턱→가슴 관통을 확인했고, 당시 검찰 조사에도 공수부대의 M16 아닌 ‘칼빈 총상’을 명시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통해 “1980년 5월 21일 오후 2시~3시경 장갑차를 타고 있었던 사람은 고 조사전씨가 아니라 고 김준동(17)씨였다. 조사전씨는 같은 날 오후 시위 도중 목에 계엄군의 총을 맞고 기독교병원으로 호송됐으나 너무 많은 사상자가 몰려드는 바람에 치료받지 못한 채 오후 2시에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고 조사전씨 부인인 정동순씨도 본보와 인터뷰

뷰에서 “조사전씨는 같은날 오후 전일빌딩 옥상에 주둔하던 계엄군의 M16 총탄이 좌전 흉부를 관통해 광주기독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스카이드일리는 또 같은해 9월 19일 ‘5·18 진실 찾기’의 ‘임신부 최미애씨 쏜 건 군 아닌 무장괴한들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남대학교에서 시위대에 포위된 계엄군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다. 임신부 최미애씨는 5월 21일 전남대학교 정문 인근 집 근처에서 무장괴한(북한 특수부대)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광주 출신이 포함된 계엄군이 광주 민간인을 총으로 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재단 등 고소인측은 “당시 전남대학교를 둘러싸고 계엄군이 무자비한 공격적 시위진압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최미애씨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은 사실이다. 암매장도 있었다. 당시 임신 8개월이던 최미애씨는 같은날 오후 1시 30분께 남편 김충희씨를 기다리다 전남대 정문 쪽 도로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또 “1980년대 군부 조사, 1995년대 검찰 조사, 2007년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등에서 조사전·최미애씨의 사망이 계엄군에 의한 희생임을 확인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1980년 5월 21일 하루에만 민간인 67명이 계엄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계엄군의 발포 관련 기사를 작성한 B기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허위성이 인정되어 송치된 바 있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스카이드일리의 주장은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며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과 광주시는 민변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대응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



‘부처님 오신 날’ 관불의식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인 5일 광주 무각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불자들이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전남 교실서 체험중심 5·18 교육 펼쳐진다

시교육청 ‘청소년 홍보단’ 운영
문화예술 공연·국제 교류 등 추진
도교육청, 45주년 기념주간 지정
독서토론 등 참여형 교육활동 다채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지역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오월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사적지 탐방버스 운영부터 청소년 홍보단, 평화·인권 퍼포먼스, 독서토론 등 5·18 정신을 꽃피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지역 교실 곳곳에서 펼쳐진다.

26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청소년 5·18 홍보단 푸른새’ 발대식을 열었다.

‘푸른새’는 청소년이 주체가 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참여 학생들은 5·18 사적지 탐방, 5·18 역사 왜곡 바로잡기 실천 활동, 카드뉴스·포스터·영상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하고 SNS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5·18 세계화 프로그램’ 국제교류 참여 기회와 시교육감 표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정은 교육감은 “광주학생들이 학교, 사적

8월에는 해외 청소년을 초청해 5·18 사적지를 둘러보고 교류하는 ‘찾아오는 5·18 국제교류’를, 10월에는 ‘푸른새’ 청소년이 대안에서 광주의 5·18과 대안의 2·28을 연결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지역 학생들이 직접 5·18을 체험하며 배우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지난 2일 각학중학교를 시작으로 24일까지 7개 학교를 순회하며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운영한다.

올해 공연에는 온챔버오케스트라가 참여해 5·18 창작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를 선보인다.

시교육청은 7일부터 24일까지를 ‘5·18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식, 계기수업 등을 진행한다.

7일에는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이 5·18 학생 희생자 학교를 찾아 합동 참배를 하며, 10일 ‘5·18 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 17일 ‘민주평화대행진’, 24일 ‘5·18 청소년 문화제 -소년이 온다’ 등도 이어진다.

학교에서는 5·18 교육 내실화에 힘을 쏟는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5·18 교육을 2시간 이상 필수 반영하도록 하고, 기념사업 학교운영비를 학교당 50만~80만원 편성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에는 5·18 인정교과서, 전시자료, 오월 교육 꾸러미를 보급하고, 교원 대상 5·18 연수, 교사연구회 등을 지원한다.

이정은 교육감은 “광주학생들이 학교, 사적

지,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5·18 정신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배우길 바란다”며 “체험 중심 교육을 지속 추진해 5·18 정신이 세계 속에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7일부터 23일까지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념주간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학생들이 민주·평화·인권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교현장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헌법 제1조와 5·18민주화운동을 연결하는 주제 수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학생들은 국가 폭력 사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는 대화의 장을 열고 이야기책 ‘오월의 달리기’, ‘오늘은 5월 18일’,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등 관련 문학작품을 활용한 열린 독서토론을 벌이게 된다.

기념주간 5·18 정신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다양한 창작 활동도 눈에 띈다.

각급 학교에서는 ‘나의 민주주의 선언문’ 작성과 발표, ‘5·18을 상징하는 나만의 문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카드, 포스터·평화 메시지 제작 등이 운영된다.

학교 공간은 오월정신을 담은 배움터로 바뀐다. 학생자치회 주도로 ‘오월정신 퀴즈대회’, ‘아침맞이 인권 피켓 퍼포먼스’, ‘평화 메시지 릴레이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전개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완도 리조트서 가스누출 14명 피해

지난 연휴기간 광주와 전남에서 가스누출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6일 완도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56분께 완도군 완도읍 한 리조트에서 손님 다수가 두통과 어지럼증 등 가스중독 증상을 보였다.

신고 받고 출동한 급급대는 성인 9명과 어린이 및 청소년 5명 등 총 14명을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1시 32분께 고흥군 복래

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1분 만에 완진됐다.

이보다 앞선 오후 4시 52분께 함평군 학교면 동함평나들목(IC) 인근에서 차량 3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사고 수습 작업으로 인해 해당 구간은 오후 9시 30분까지 극심한 차량 정체를 겪었다. 이수민 기자

쌍촌동 (4층건물) 매매 상가 주택 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 ▶ 원가 급매 13억 9억8천만	장성토지 (담양) ①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 수도 완비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유흥기능 (룸, 노래홀, 홀덀파) ▶ 6층 (전용 60평) (보2천, 월수익 250만) 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	법원 경매 ★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 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
010-6670-9800		062-382-5500	